

1대199  
투표권자  
투표권자



가난의대물림 끝장 낼 진보후보!

7

# 김종민

서울사대부초/중앙중/중앙고/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졸업  
전)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 전)18세선거권낫추기공동연대 대표 | 현)청년전태일 대표 | 현)김용균재단 이사  
현)민주노총 동대문지역 미조직전략위원 | 현)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서울구명위원회 공동대표

☎ 010-3011-8601

f 민중당 김종민

▶ 민중당 김종민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을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7	민중당	김종민	남	86.01.01 (34세)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전)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현)청년전태일 대표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9,988	29,988	해당없음	고지거부	해당없음	육군병장 (만기전역)	없음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3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230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없음		

### 4. 소명서

# 1대 99 불평등 뒤집을 청년정치인 김종민



## 불평등 OUT! 김종민의 3대 약속

### 토지공개념 실현!

국민의 80%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하겠습니다!

###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을 부과하게 하겠습니다!

### 재벌총수 최고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20세 청년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하겠습니다!



## 기득권 양당정치 끝내자!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 적폐 세력인 미래통합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촛불 정신을 버리고, 스스로 기득권을 쥐려고 하는 민주당 또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기득권에 기반한 양당정치를 끝내고,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진보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 진보의 새 인물!

## 김종민이 노동 중심 사회 만들겠습니다!

등록금을 벌다가 이마트에서 죽은 서울시립대 학우 황승원 '43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 '13일'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16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8일'  
 김종민이 유가족과 함께 눈물흘리며 장례식장을 지킨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과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002~2003

#### 한미관계 불평등을 외친 청소년!

중앙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던 고등학교 3학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숨진 효순미선 사건 해결을 위해 고3 1년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 2005

####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춘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

청소년 선거권을 위해 선거연령 인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2005년 선거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췄고, 이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만18세 선거권 인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11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한 총학생회장!

등록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故황승원 학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학우들의 부담스러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전국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습니다.



### 2016~2019

#### 비정규직 노동문제 전문가!

구의역 김군, 제주실습생 이민호, 발전소 김용균 등 청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함께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 110명은 '김용균 투쟁에 가장 앞장 선 김종민 때문에 가입을 결심했다'며 민중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 조국장관에게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제기한 청년 김종민

‘조국후보의 자녀와 우리의 출발선이 같습니까?’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결정되는 불공정한 사회, 1인당 GDP 3만 불이 넘지만 청년들은 산업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표해 조국장관에게 직접 제기했습니다.

